

모든 국민이 철저한 방화의를 가질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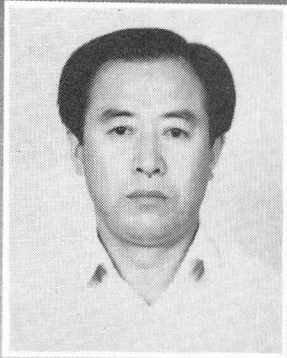
등산가 「조오지 말로리」라는 사람은 제3차 「에베레스트」산 원정 출발직전 인터뷰에서 「왜 산에 올라가는가?」라는 물음에 「거기에 산이 있으니까!」라고 짧게 대답하고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왜 소방에 몸담고 있는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거기에 화재가 있고, 고귀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을 보호하는 신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고귀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을 화마로부터 보호하는 일, 그것은 눈속을 헤치고 그저 정상으로 정상으로 등반해 올라가는 산악인의 노력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악전고투하는 점에 있어서는 산악인의 노력과 다를 바가 없겠으나 거기서 얻어지는 느낌은 정반대인 것 같다.

높이 올라 갈수록 전개되는 넓은 시야! 정상 정복자의 그 통쾌감,



백 두 현
(성동소방서 지방소방사)

“
안전점검이나 화기취급을 소홀히 함으로써 야기되는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엄청난 것이므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화재 예방을 생활화 합시다.
”

그리고 성취감.

이런 것들이 산악인의 것이라면 우리 소방인들이 아무런 사심도, 이해관계도 없이 아버규환의 화재현장을 이리뛰고 저리뛰다 보면 남는 것은, 인간들의 생명과 재산에 연연한 천태만상의 몸부림과 허탈감, 그리고 우울함 뿐이다.

여러가지 재난중에서도 화재로 인한 피해처럼 어이없고 안타까운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자칫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입었을때 한동안은 떠들썩 하고 온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하다가도 얼마가지 않아 인간들의 뇌리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만다.

대다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중에 왜 하필이면 내가 화재를 당하여 피해를 보겠느냐?」, 「나처럼 운이 좋은 사람은 그런 화재는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자위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요행론적인 생각때문에 또다시 같은 유형의 참사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네 범인들의 삶이란 뜻하지 않은 일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며 살아가기 마련이라지만, 운명이라는 가혹한 고뇌의 상처를 박차고 일어나 이를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

천지의 유구함과 인간의 왜소함을 견준다면 운명론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간은 모두 비슷한 생태를 지니고 있고 항상 모순과 갈등 속에서 살며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가 갠 어느날 불안의 신 「아이도비우스」가 강가에서 흙 한덩이를 뭉쳐 들고 있었는데 마침 영혼의 신 「쥬피터」가 지나가고 있었다. 불안의 신은 영혼의 신에게 「이 흙덩이 속에 영혼을 넣어 생명체를 만들자」고 제의했다.

이렇게 하여 영혼의 신이 쾌히 승낙하고 혼을 넣어 생명체가 되었는데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로 다툼이 벌어지고 말았다. 불안의 신은 자기가 빚었으니 자기 이름을 붙이겠다고 했고, 영혼의 신 역시 양보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 토신인 「가야」가 지나가다가 흙으로 빚었으니 자기 이름을 붙여야 마땅하다고 끼어 들었다.

할수 없이 셋은 시간의 신에게 중재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판결문을 보면 『영혼의 신 「쥬피터」는 죽은 후에 영혼을 찾아 가고, 토신인 「가야」는 흙을 찾아 가되, 불안의 신 「아이도비우스」은 살아 있는 동안만 지배하며, 그리고 죽는 시간은 시간의 신인 내가 결정하겠다.』로 되어 버렸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살아 있는 동안 불안의 신이 지배하게 되어 그 운명이 불안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 보다도 현명하고 지혜롭다.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치 앞도 예측 못하는 무력한 존재이며 항상 불안을 안고 살면서도 인간이 만든 도구가 자신의 무덤을 만드는 것인줄도 모르는 우둔한 점도 있다. 이런 것을 “인간적”이라고 하던가.!

인간적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배신도 하고 부주의도 한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야 하고 좀더 잘살기 위해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는 인간들.

사랑하는 것도 인간적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인간적이기 때문에, 화재를 내는 것도 인간적이기 때문이다. 잘못을 저지른 후에 후회하고 참회하는 것도 역시 인간적인 모습이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의 주변에는 불에 탈수 있는 무수한 가연물이 있고 우리 인간은 거의 항상이라고 할만큼 많은 양의 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간의 주의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재를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속수무책인 채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가령 우리의 이웃중 어떤 사람이 어떤 부주의로 화재를 당하여 천신만고끝에 마련한 집과 가재도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잃었다고 하면 아마 우리들은 그 사실을 측은해 하며 그사람 참 재수없구만 하고 재수쪽으로 몰아 부치고 말 것인가?

그 보다는 근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어떤 이유를 찾아내서 나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모든 화재를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또 줄일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눈앞에 전개되는 새시대에는 안정과 번영의 시대로서 풍요함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케 하는 소방안전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라고 생각된다.

경제적 번영 이면에는 발전의 역기능을 초래하는 각종 재해와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주시대의 문명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새로이 도전하는 화재로 인한 각종 재난과 재해에 과감하게 맞서서 우리의 슬기를 모아 이를 해결함으로써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이끄는 것만이 화재없는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선진국민의 방화 의식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본다.

우리가 평소에 주의를 태만히 하여 안전점검이나 화기 취급을 소홀히 함으로써 야기되는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만큼 엄청난 것이므로 지난 날의 타율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내나라, 내직장, 내가정의 주인으로서 긍지와 책임에 입각하여 보다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화재예방을 생활화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방화 의식은 남녀노소를 가릴 수 없으며 때와 장소의 구분없이 모든 계층의 국민이 철저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